

社說

포천시 대규모 인사발령

포천시는 19일자로 대규모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활성화 혹은 효율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조직개편과 3년 이상 한자리에 근무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다

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공직자를 주요 부서에 배치하고 승진발령에서도 혜택을 줘야한다.

또 승진자 역시 개인의 능력보다는 연공서열에 의해 단행했다는 것이 포천시 공직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인사발령을 실시한 후 포천시 공직사회는 "누구누구는 능력이 있는데 승진했느냐, 자리변경을 했느냐"하는 식의 말들이 많다.

요즘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시, 울산시, 전라남도 등 전국적으로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들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또 인사를 할 때마다 만족한 사람보다는 불만있는 사람이 많게 마련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포천시 공직자들의 불만은 일부 예견된 상황이다.

공무원=철밥통이라는 등식이 깨지고 있다. 공직사회는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포천시는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년 이상 한 자리에 근무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보발령을 실시했기 때문에 일부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봉급에서 근무경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사발령을 실시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다.

800명이 넘는 포천시 공직사회는 결코 작은 조직이 아니다. 포천시를 움직이는 가장 큰 주춧돌이자 지역발전의 선도해야 할 조직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조직의 효율성은 크게 고려되

야 한다. 포천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속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고객을 最高가치로 존중’

포천署, 가치창조 선포식 가져

포천경찰서(서장 김중해)는 3월 13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필수요원을 제외한 13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즐거운 경찰행복한 시민을 위한 가치창조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중해 포천경찰서장은 훈시를 통해 고객만족을 통해 성공한 민간기업체의 사례를 들며, 경찰의 운명은 고객인 주민들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내부고객인 직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외부고객인 주민과 사회의 고객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각자의 맡은바 업무에 있어 창조적 자세를 당부했다.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구독자 확보 및 배트남 연수 논의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제63차 정기회의가 지난 1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윤이용 위원장은 "포천신문은 포천지역에서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질 좋은 신문을 만들고 있다"면서 "포천신문과 운영위원회가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수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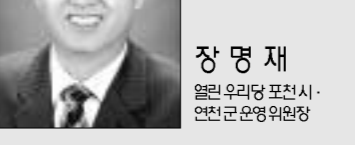
포천신문 운영위원회는 제6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코텍 김관수 대표이사를 신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패를 전달했다.



포천신문 운영위원회는 제6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코텍 김관수 대표이사를 신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패를 전달했다.

시/사/칼/럼

선(先) 교통인프라 - 후(後) 개발



강명재 원천연구원장

고 나가면서 급속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포천의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되어야 한다.

2006년도 포천시의 재정지출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6위로 밝혀졌다. 재정지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있어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재정지출이 높으면 지역내 총생산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철 포천 연장선과 파주고속도로 유치, 국도43호선 확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민자고속도로는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고, 지하철 7호선 포천연장사업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성남 속도가 빠른 고양시, 의정부시, 하남시, 구리시, 파주시, 남양주시 및 양주시가 발전 속도가 더딘 포천보다 재정지출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도내에서 지역경제의 활력이 넘치는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순으로 재정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북부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성남 속도가 빠른 고양시, 의정부시, 하남시, 구리시, 파주시, 남양주시 및 양주시가 발전 속도가 더딘 포천보다 재정지출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도내에서 지역경제의 활력이 넘치는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순으로 재정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최호열 본지 발행인은 "포천신문 운영위원회가 구성된지 5년3개월이 흘렀다"면서 "그동안 운영위원회는 포천신문 노인마라톤대회를 비롯해 포천신문 각종 행사에 적극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포천시가 제대로 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포천시는 성장과 발전에서 "고립된 섬"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최 발행인은 또 "포천신문이 10일마다 한번도 빠짐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준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포천신문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신문이 한차원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인프라 확충은 포천시의 미래성장과 성장동력의 전제조건이다. 국회의원, 시장 등 정치인들이 갈등과 정쟁으로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역할분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선도난 신고포상 최고 3천만원까지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지점장 이영삼)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선도난 방지 및 전기 안전을 위해 '전선도난 신고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포상기준은 피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금액의 10%를 지급하고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5천만원 초과 피해금액의 7%,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천250만원+3억원 초과 피해금액의 5%를 지급한다.

용 전주에는 2만2천900V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 매우 위험하며 전선 절취를 목적으로 전주에 올라가 전선을 절단한다 감전되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주에 무단으로 올라가거나 전선을 절취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한전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신고는 한전 포천지점(539-0282, 0268)이나 포천경찰서(112)로 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including contact details, pricing, and a table of subscription rates for various periods.

Large advertisement for Pocheon News, featuring the slogan '언제나 바른 뉴스' and '포천신문은 전국 最高의 지역신문'. It includes a detailed list of publication dates from 2000 to 2007.